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음 11월 7일) 제16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헌정사상 최다 232만의 함성…

박근혜 3차 담화에 분노 폭발

전국 참가자 수 200만명 넘어
국정농단 이후 이번이 처음

200만이 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3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오후 9시30분 기준으로 연인원 서울 광화문 170만명, 지방 62만명 등 전국 총 232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 참가자 수가 200만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규모였던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마지막 집계 오후 9시40분)으로 연인원 서울 150만명, 지방 40만명 등 전국에서 190만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을 집계하는 경찰 추산 방식으로도 오후 7시10분 기준 서울 32만명, 지방 10만9000명 등 총 42만9000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에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지점에서 집회가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정숙)이 3일 퇴진행동이 제기한 경찰의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100m 거리인 126벤션과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 집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함성

광화문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오후 4시가 되자 청와대로 향했고, 50만명(주최 측 추산 오후 5시 기준)의 시민이 대통령 관저 턱 밑에서 "퇴진" "물러나라" 등을 외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행진 선두에 선 세월호 유족들은 청와대가 가까워지자 오열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허용된 시간이 지나자 오후 6시 광장에서 열리는 본집회 참가를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광장으로 이동해달라"는 경찰의 권고에도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했다.

이날 집회에서 가수 한영애씨가 무대에 올라 '조율' 등을 열창했다.

이어 시민 자유발언, '1분 소등' 등 1시간 동안 본집회 일정을 소화한 시민들은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나뉘어 청와대 방면 2차 행진에 나섰다.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도 있었으며, 죄수복을 입은 박 대통령의 모형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제6차 광화문 촛불집회

170만 시민들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 벌여
세월호 유가족들 선두에

전북도민 4차 총궐기대회

도내 곳곳 시민 함성 이어져
전주·군산·익산 등에서 박 대통령 즉각 하야 촉구

늦은 밤까지 시민들은 집회를 질서정연하게 벌였으며,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북에서도 촛불 열기 이어가

이날 촛불은 전북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날 전주시 관통로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제4차 전북도민총궐기'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오후 8시 현재, 2만여명(경찰 추산 8000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이날 전주에 모인 촛불의 개수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7000명)'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가습까지 서늘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시민들은 찬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가족들과 함께 거리에 나선 김모(41·전주시 삼천동)씨는 "박 대통령은 여기 모인 국민들이 하는 말을 제발 한 번이라도 듣기를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요구"라고 말했다.

전주에서 2만 인파가 운집한 시각, 익산과 군산에도 각각 2000명과 1500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또 정읍과 남원의 도심에서도 수백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북시국회의는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어 이날 전북에서 최대 2만5000여명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주 풍남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북시국회의와 시민들은 마무리 집회를 가진 뒤, 자정 전에 해산했다.

/김민근 기자

지난 3일 전주시 관통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전북도민 4차 총궐기'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본사 주최 '제1회 전북도 남녀 동호회 배구대회' 성료 ➔ 13면 · 16면

야3당, 박 대통령 탄핵 소출안 국회 제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
미르재단 등과 관련 뇌물 혐의 적시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9일 표결에 부치기로 지난 2일 전격 합의하고 3일 새벽, 소추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고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해서 9일 탄핵안 가결에 목표를 두자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탄핵안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은 "새누리당 비박세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 대통령 탄핵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박계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박계 설득을 위해서 개별적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 대표를 만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탄핵안 처리 시점을 9일로 정한데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을 9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탄핵안 2일 표결 불발로 균열이 갔던 야권 공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야권 공조 균열로 서로를 비난한 점도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야3당은 "이유가 어찌됐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야3당은 어떤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2일 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도출했으며, 3일 새벽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돼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관련,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림 없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안 지킨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을 받는다 해도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3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 3당 합의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이 공식 제출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돼 있다.

/안재용 기자